

## 한반도의 통일과 해사산업의 부흥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아쉬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전 북한이 연거푸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던 때와 비교하면 무척이나 평화로운 2년여를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차 북미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점차 해빙 모드로 접어들어 종전선언과 남북경제협력, 나아가 남북철도연결 등을 통해 점차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듯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 증가, 노령화의 진척, 성장동력의 약화, 결혼율 저하와 출산율 급락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해사산업계도 해운물류산업의 불황 지속, 재벌기업의 물류업 진입의 폐해, 1인당국민소득의 상승과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해양대의 유인력 약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존폐 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건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한반도의 통일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해사산업계를 포함하여 남북한 모두의 평화와 풍요로운 삶을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인 것 같다.

지난 6년 동안 『해양담론』은 목포해양대학교부설 해양문화정책연구센터에서 4호까지 기획하고 문헌 출판이 발행하였고, 2018년 제5호는

편집주간의 개인 연구실에 해당하는 해양문화정책연구센터가 기획하고, 문헌 출판이 발행하였다. 이번 제6호부터는 한국해양대학교 박물관 부설 해양문화정책연구센터가 기획하고 문헌 출판이 발행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제6호는 지난해 11월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와 해양문화정책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해양문화정책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논문 6편과, 투고논문 2편과 기획 연재 글 등 어느 호보다 풍성하게 꾸몄다. Ship's Bench에서는 김주식 교수님의 '바다 관련 영어 표기에 관한 소고'를 실었고, 해양논단으로 고희섭 교수님 등의 '이순신의 수군 해상기지 안편도 위치 추정'과 정진술 선생님의 '신라 당은포의 위치'에 대해 논증하는 글을 실었다. 해양문학에서는 구모룡 교수님의 '해양 소설과 향해-장르 비평적 과제'를, 해양문화에서는 유재홍 선생님의 '미술레의 <바다>를, 해양역사에서는 신성재 교수님의 <왕건의 서남해 도서지방 경략과 해양사적 의미>와 문경호 교수님의 '고려시대 조운제도와 조창', 박종오 선생님의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한 비극적 영웅 장보고'에 대한 옥고 세 편을 각각 실었다. 해양사의 한 장면에서는故 최영 시인의 '추억 속의 해양대학'을, 해양사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선원 수첩'을 각각 실었다. 해양영화로는 '마스터앵커맨더'를 소개했고, 해외해양사론에서는 중국 지메이대학의 종지굉(鍾紀鋒)과 崔云峰 교수님이 '중국 고대 항해도와 항해도구'에 대한 귀중한 글을 보내주었다. 역사와 문학이 고루 분포되어 말 그대로 '해양문학과 해양역사의 만남'을 통해 해양인문학의 대중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게 된 것 같아, 모든 필자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지난호에서 다음 항해(제6호)는 좀 가벼운 항해로 준비해보려고 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가볍게 읽을 수만은 없는 듯 하다. 이는 대중을 위한 글쓰기에 능한 해양인문학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독자들의 격려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Bon Voyage! Memento Mori! Carpe Diem!

2019. 봄  
봄꽃 핀 아치섬에서  
편집주간 김성준